

수급원활과 가격 안정에 선도자적역할 다해주시기를

鄭宗澤장관 전국 농약판매업자에 친서



<鄭宗澤장관>

지난해에는 냉해등 기상재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식량증산이라는 대명제 아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공급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 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새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 새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과거의 폐습을 과감히 척결하는 현시점에서 본인은 농민의 불만 요소중의 하나인 농약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코자 금번에 농약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이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농약판매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사용하는 농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년의 당면 영농시책 추진에 앞서 항상 말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농약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다음 몇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드리니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약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식량증산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약 유통체계가 농협과 시관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점을 악

용하여 일부에서는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격상승을 유도하여 원예용과 수도용간의 가격조작으로 농민의 원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민간주도의 자유경쟁 원칙에 부응하여 농약공급을 점진적으로 시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므로 여러 분께서도 이점에 유의하여 농약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판매가격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써 농약의 유통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농약의 품목수가 많고 외래어 상표 사용으로 농민의 불평이 많은 데 이를 이해시키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병해충수는 약 3,300여종으로 이에 대응하는 신규 농약의 개발이 계속 필요할뿐 아니라 품목과 상표수를 이웃 일본과 비교할때 일본은 1,368종(상표: 4,250종)으로 우리나라의 217종(상표: 261종) 대비 6.3배(16.3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며 농약제조를 위하여 원제를 외국에서 수입하므로 국제관계상 외래어 상표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약사용에 있어 혼란을 가능한 방지하도록 개정 농약관리법에 따라 품목명 중심으로 표기하고 통일품목으로 다양한 상표를 가진 것은 통폐합하여 축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당분간은 생소한 품목명으로 농민의 농약선택과 사용에 혼선이 예상되는만큼 판매를 담당하고계시는 여러분께서 계속 홍보, 지도함으로써 농약의 품목과 상표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토록 농민을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농약공해의 예방측면에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대상 품목을 종전의 19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하고 취급제한 기준도 수송, 보관, 판매, 사용의 규제와 함께 고독성 농약을 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할때는 사용자인 농민까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신설 강화하였음

